

취재 결과에 대해 의원님께 다음과 같이 공식 질의를 드립니다.

1. 출처나 인용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특히 출처나 인용 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2. 이 같은 인용 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물을 그대로 베끼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하며, 저작권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3. 고위공직자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중복게재, 표절 의혹 등입니다. 이 사안의 윤리적, 도덕성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사람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4. 앞에 거론된 정책자료집 발간 과정에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즉 국가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별 정책자료집 마다 집행된 구체적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공개할 수 있으신지요?
5. 또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의원님이 청구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에 반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6. 다른 사람의 연구물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행위는 의원님 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7.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과 정책자료집의 내실있는 발간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이번 정책자료집 취재를 하는 이유는 특정 의원님들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국회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정책자료집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글쓰기 윤리'는 반드시 논문을 다루는 교수, 전문 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물론 고위 공직자 역시 글쓰기 윤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고통스럽게 작성된 다른 이의 아이디어와 연구물을 제대로 인정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 학문의 발전은 물론 그 사회의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곧 다가올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대단히 바쁘실텐데, 이렇게 불쑥 연락을 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문제제기를 이해해주시고 꼭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타파 박중석 드림